

Conference for "New Building Blocks for Jobs and Economic Growth" 참석

-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산업경제연구센터)

1. 출 장 개 요

- 출장기간 : 2011. 5. 16(일) ~ 2011. 5. 21(금)
- 출장지역 : 미국 Georgetown University's Center for Business and Public Policy
- 출 장 자 : 장석인 소장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 방문기관 : Conference on New Building Blocks for Jobs and Economic Growth 참석
미국 Georgetown University's Center for Business and Public Policy와 관련된 DC내 연구기관을 방문

2. 출 장 목 적

- 미국 Georgetown University's Center for Business and Public Policy가 주최하고, OECD, Athena Alliance, The Conference Board, Kauffman Foundation, The National Academies-STEP 등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새로운 성장원천으로서의 무형자산'에 대한 국

제 컨퍼런스 참석

- 컨퍼런스의 공식 명칭: Conference on New Building Blocks for Jobs and Economic Growth: Intangible Assets as Sources of Increased Productivity and Enterprise Value
-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미국 Georgetown University's Center for Business and Public Policy와 관련된 DC내 연구기관을 방문, 관련 주제에 대한 정보수집과 함께 전문가와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3. 출장 일정 및 주요 면담자

일자	방문 대상	주요 면담자
5/16 (일)	인천 출발, 미국 워싱턴 D.C. 도착, 리셉션 참석	
5/17 (금)	컨퍼런스 첫째날	
	총회참석	미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인 Ben Bernanke의 특별강연 참석 Kenan Jarboe (Athena Alliance)
	4개의 Breakout Session 중 Driving Next Generation Innovation Ecosystems 참석	Alistair Nolan (OECD)
5/18 (화)	컨퍼런스 둘째날	
	4개의 Breakout Session 중 Boosting Competitiveness, Jobs and Growth 세션 참석	Andrew Wyckoff (OECD), Dirk Pilat (OECD)
	총회 참석 및 미국 Georgetown	Bart van Ark

	University's Center for Business and Public Policy 방문	(The Conference Board)
5/19 (수)	존스홉킨스대한 SAIS내 한국연구소 및 Brookings Institute 방문	Jae H. Ku소장면담
5/20~ 5/21 (목, 금)	5월20(목) 미국, 워싱턴 D.C. 출발, 5월21일(금)인천 귀국	

4. 복명 내용

(1) 무형자산 컨퍼런스 개요

- 일시 및 장소: '11. 5. 16(일)~ 18(화), 미국 워싱턴 D.C.
- 개최목적: 혁신활동과 무형자산, 지적자본에 투자확대의 방법과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임금의 고용,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원천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자 워크숍 형태의 컨퍼런스 개최
- 주최기관: 미국 Georgetown University's Center for Business and Public Policy가 주최, OECD, Athena Alliance, The Conference Board, Kauffman Foundation, The National Academies-STEP 등이 공동 후원
- 주요 참석자: 비즈니스 리더, 정책입안자, 연구자와 학계인사들이 주로 참석(invitation-only conference)

(2) 무형자산 컨퍼런스의 주요 구성과 참가 내용

- 컨퍼런스는 두 차례의 총회와 4개의 Breakout 세션으로 구성

- 두 차례의 총회 중 개회총회는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위 의장의 Keynote Speech와 폐회총회는 4개 세션의 논의결과를 종합하는 회의로 진행
 - 4개의 Breakout 세션은 제1세션 Boosting Competitiveness, Jobs and Growth, 제2세션 Driving Next Generation Innovation Ecosystems, 제3세션 Global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제4세션 Emerging Measures for Strategic Management으로 나누어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인을 이용한 워크숍 스타일로 진행
- 4개의 Breakout 세션별 워크숍에서 주로 다루어진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 제1세션 Boosting Competitiveness, Jobs and Growth 에서는 주로 기업들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활동과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를 규명한 후 이들 혁신과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 제2세션 Driving Next Generation Innovation Ecosystems 에서는 지적자본(intellectual capital)과 무형자산이 미래의 혁신과정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이어서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지를 검토
 - 제3세션 Global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에서는 지적자본과 무형자산이 미래의 글로벌 경쟁을 어떻게 새롭게 규명하는 지를 검토하는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점점 그 중요성이 더해져 가는 지적 자본이 갖는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규명
 - 마지막 제4세션 Emerging Measures for Strategic Management에

서는 무형자산의 정량화에 관한 문제로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에
서 어떤 새로운 차원의 추정방식(재정측면, 실무적 측정측면, 성과
측면)과 전략이 필요한지를 검토

○ 컨퍼런스 중 버넝키 의장의 Keynote Speech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컨퍼런스 자료#1 참조

- 버넝키 의장은 이날 강연에서 "주요 경제이론에 따르면 정부의
R&D 지원 기능이 없이는 적절한 기술 개발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미국 재정긴축 상황을 고려할 때 이같은 지원
방안은 조심성있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

- 또한 버넝키 의장은 이전 2세기 동안은 기술혁신과 진보로 인해
세계 경제는 급속히 변화됐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경제성장에 있어
기술혁신과 변화가 크게 기여해왔다고 지적하고 정부 역시 미국내
과학자 및 학생, 이민 전문인력 등에 무형자산에 대한 지원을 확
대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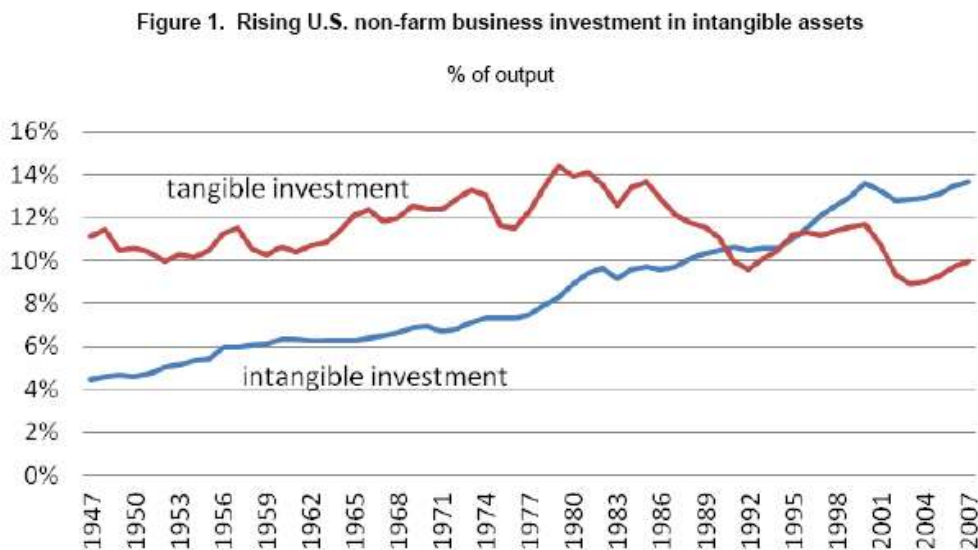
- 버넝키 의장은 현재 미국의 정부 및 민간부문 R&D 투자는 과거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으로 안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R&D
정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과학자와 기술자 등 인적자원에 대한 지
원도 병행해야 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라고 밝힘.

○ 한편 이번 출장에서는 상기 4개의 세션이 동 시간대 각 각 다른 장
소에서 워크숍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첫째날은 제1세션 Boosting
Competitiveness, Jobs and Growth에 참석, 둘째날은 제2세션
Driving Next Generation Innovation Ecosystems 참석

- 각 세션별 주요 논의의 배경과 핵심의제의 내용은 각 세션의 배
경논문(background paper)인 별첨 자료 #2~#5 자료원문 참고

(3) 제1세션의 주요 논의 내용

- 논의배경: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 증대에 비해 관련 개념, 측정, 조세, 정책 및 제도 관련 논의의 현저한 부족
- 최근 10년 동안 미국의 경우 비농업부문 투자에서 무형투자 규모가 유형투자의 규모보다 더 빠르게 성장 (<그림 1> 참조)



Source: Corrado and Hulten (2010)

- 여타 선진국에서도 무형자산 투자의 규모와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영국의 경우 1970년부터 2004년까지의 시장부문 총부가가치에서 무형자산 투자가 차지한 비중은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1974~75년 이래 무형투자의 연평균증가액이 유형투자 연평균증가액의 약 1.3배로 나타났으며(Barnes and McClure, 2009), 일본에서는 GDP에 대한 무형투자 비율이 지난 20년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분석(Fukao et al. 2008),

- 주요 논의 아젠다는 주로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의 특성과 무형자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무형자산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대응 방향과 향후 연구과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룸
- 무형자산 투자는 혁신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혁신투자는 혁신을 통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한시적 독점적 수익(monopoly returns)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형자산에 효과적으로 투자하고 활용하는 기업들에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 존재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특성은 무엇인가?를 논의
- 성장과 혁신에 대한 무형자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는 아직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에 기초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논의
- 또한 많은 세부적인 무형자산 측면에서 볼 때,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데이터의 개발은 아직 초창기 단계에 있으므로 각국 정부가 무형자산 및 성장에 관한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지를 중점 논의
- 특히 무형자산간의 상호보완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바 이러한 상호보완성을 활용하기 위해, 조정하거나 관리해야 할 공공지출 혹은 정책개발 요소가 있는지와 기업이 무형자산을 가장 잘 운용하고 그로부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정부가 어떤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경쟁을 통해 무형자산을 보다 잘 활용하는 기업을 걸러내도 충분한지의 여부와 별도의 개입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
- 또한 향후 주요 선진국들이 점진적으로 무형자산 주도형 경제(intangibles-driven economy)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어떤 프레임워크 정책(framework policies)이 중요한 지를 논의

- 예를 들어 지속적 성격인 R&D와 훈련 외에, 기업들이 다른 주요 무형자산에 투자해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때 정부 지원이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방식과 무형자산 집약적인 창업회사에 대한 자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책개혁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

(4) 제2세션의 주요 논의 내용

- 논의배경: 정책논의와 분석수준에서 혁신과정에서의 무형자산의 역할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논의가 대학과 연구소, 과학자와 R&D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디자인, 소프트웨어, 데이터와 같은 대표적 무형자산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
- 주요 논의 아젠다로는 대표적 무형자산인 디자인, 소프트웨어, 데이터(민간 및 공공데이터)의 혁신과정에서의 역할과 이들 무형자산을 중심으로 한 지식네트워크와 지식교환시장에 대한 논의와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향후 연구과제 등을 논의
- 디자인의 경우 관련 정책은 일반적으로 디자인에 관련된 기술을 보장하고, 고품질의 디자인 표준을 촉진시키며 디자인 권리를 수립하고 강행하는 것과 관계되고, 디자인에서 민간 투자부족의 증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디자인에 민간 부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논의
-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성공적 개발의 여러 조건이 지적재산권의 질과 충분한 인적 자본의 존재를 포함하는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도움이 되는 정책 조건을 만드는 것 외에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
- * 소프트웨어 무결성, 상호 운영성 및 접근성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의 질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목표와 정책방향 수립 필요

- 데이터와 관련 일부 희귀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통계 데이터세트와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세트가 여러 분야의 다른 연구와 목적에 다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업적 데이터의 재사용에 대해 관찰된 장벽은 무엇이며 이러한 장벽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논의

- * 현재, 그런 질병에 관한 많은 정보는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보험회사와 의사에 의해 수집되지만, 연구를 위해 재사용되지는 않음.

- 공공정책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사용자 신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새 데이터 관련 시장을 구축하고 개별정보로부터 개인 및 공공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

- 한편, 무형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체제 미흡이 무형자산의 안정적인 가격형성 등 시장기능을 저해함에 따라 무형자산과 관련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보호하고 지식사회 또는 연구협회의 비영리 참가자를 위해 적당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충분한 개방접근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 따라서 R&D 투자와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구수행 대학교로부터 지식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예를 들면, 보조금 지급 기간 동안 정부는 초기단계의 연구결과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거나 후속 발명을 제한하는 구속적이거나 독점적인 라이선스의 빈번한 사용을 막는 등의 생산적인 지식네트워크와 교환시스템, 지식정보 등 무형자산의 교환시장(KNM)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

- 구체적으로는 KNM은 왜 아직도 제품, 노동 및 금융시장과 비교하여 개발이 부진한가? 그리고 정부가 KNM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가 등

(5) 폐회총회의 주요 내용

- 4개 세션별 워크숍 스타일로 진행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확인된 정형화된 사실들(stylized facts)을 정리한 후 향후 논의 아젠다와 중점 연구방향을 종합토론
 - 제한된 시간내 다양한 분야의 학자, 기업, 연구기관, 컨설팅기관의 참석자들이 많은 아젠다를 논의한 탓에 다소 산만한 논의결과가 도출
 - 그러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무형자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과 주요 논의사항을 정리한 점에서 의의
- 무형자산에 관한 논의에 있어 확인된 정형화된 사실들(stylized facts)은 대체로 다음과 같음.
 - 무형자산에 대한 이해와 기업차원과 GDP 측정 프레임워크가 상호보완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크게 증진된 바 이는 무형자산을 투자로 간주하는 이상 거시적 측정문제는 성장회계방식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며, 최근의 기업전략 또한 상당부분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구축되며, 거시적 측정문제도 개별기업의 회계보고상 무형자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임.
 - 거시경제분석과 GDP 측정 차원의 분석 프레임워크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GDP추정과 무형자산 관련 기업재무회계보고간의 상호이해와 측정프레임워크간 통합이 긴요하고 각각의 상당한 독자적 발전과 상호이해를 위한 공유된 개념과 분석프레임워크가 필요
 - 무형자산과 관련한 프레임워크의 구축과 논의는 너무 중요해서 거

시경제이론가의 논의에만 맡겨 놓아서 안되며 단순히 무형자산의 측정과 활성화차원의 논의에만 머물러서도 안되는 중요한 현안임.

- 민간을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무형자산 문제를 회계보고와 측정문제만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무형자산이 어떤 메카니즘을 거쳐 기업의 혁신과 서비스개선, 기업이미지 제고와 경영성과와 연결되며, 경제전반의 혁신과 연계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무형자산에 관한 논의에 있어 정부의 역할과 향후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확인된 정형화된 사실들(stylized facts)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됨.
 - 무형자산과 관련한 정부개입 또는 정부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무형자산 관련 미시경제학적 접근의 필요성과 시장실패의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혁신관련 세제혜택이나 새로운 교육훈련 모델구축 등과 같은 정책적 개입에 앞서 여러 가지 무형자산들 상호간의 보완적 요소와 근로자를 포함한 지식노동자를 통한 지식의 흐름과 교류를 포함한 협력모델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
 - 또한 그러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모델과 사례분석, 제도와 프레임워크 조건에 대한 심층연구와 이해가 필요
 - 동시에 대기업과 창업소기업간 정보교환과 부품소재 조달 등을 통한 상호 교류와 혁신활성화 메카니즘에 대한 심층연구도 필요
 - 또한 현재 개인발명자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장치의 하나로 디자인된 특허제도를 기업간, 또는 연구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창출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보호할 수 있는 특허제도로의 전환도 검

토할 필요가 있음.

(6) 미국 Georgetown University's Center for Business and Public Policy, 존스홉킨스대한 SAIS 내 한국연구소 및 Brookings Institute 방문시 주요 관찰사항 및 면담 내용

- 미국 Georgetown University's Center for Business and Public Policy의 경우는 이번 컨퍼런스를 호스트 할 정도로 무형자산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과제에 대한 연구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이 주제를 심도있게 연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 존스홉킨스대한 SAIS 내 한국연구소 방문시 구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ODA지원대상국 선정시 국제관계학적 관점의 접근의 필요성과 연구원의 ODA지원국의 경제발전 전략연구 시 존스홉킨스대한 SAIS 내 지역연구 프로그램과 인적네트워크의 활용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
- Brookings Institute 방문의 경우는 개별 면담없이 Brookings Institute의 최근 발간자료와 최근 중점 연구주제에 관한 정보만 입수

(7) 주요 관찰사항 및 건의사항

- 그동안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일견 제조업기반의 약화로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한계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평가되었으나, 무형자산의 축적과 이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심층연구와 체계적 논의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음을 확인
- 특히 국내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는 주로 규제완화에 치중되고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활성화에 많은 논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국내에서도 무형자산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성장원천 분석에 있어 주로 노동, 자본, 기술진보 등의 거시경제이론 기반의 접근과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투자의 경우 유형자본 위주의 분석이 대부분이나 향후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확대의 성장기여도 분석을 위해 무형자산에 대한 기초통계, 측정방법, 기업 재무회계상 무형자산에 대한 비용을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와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